

## 멕시코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현황

### □ 멕시코의 해외투자 진출 개요

- 멕시코의 해외투자는 2007년에 83억 달러로 정점을 이루었으나, 2008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09년에는 42억 달러를 기록함.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신종플루에 따른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주요 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임.

#### 멕시코의 해외 투자진출 규모

단위: 백만불

연 도	2005	2006	2007	2008	2009
투자규모	6,474	3,897	8,256	6,000	4,200

자료 : OECD, UN중남미경제위원회 (CEPAL)

### □ 멕시코 주요 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및 특징

- 멕시코의 해외투자는 주로 대기업에 의한 M&A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주요 투자지역은 미국 및 중남미 국가임. 투자의 특징은 사업 확장 목적의 M&A라고 할 수 있음.

#### <중남미에 투자 집중>

- 비즈니스 방식의 유사성, 지리적 인접성, 언어소통의 편리성 등으로 60%이상을 중남미지역에 투자하거나 중남미/스페인계 기업을 인수함.

#### <대기업에 의한 투자>

-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투자가 대부분임.

#### <그린필드 투자보다 M&A 선호>

- 초기자본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그린필드 투자보다 M&A를 선호

<사업확장에 목적을 둔 M&A 다수>

- 경영권확보 후 재매각이나, 자원 확보 목적보다는 효율성, 기술제고 및 판매망 확장 등 사업확장 목적의 M&A가 대부분을 차지함. 이는 제조업 성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가군에 속하는 멕시코의 특성상 제조업 중심의 사업확장이라는 M&A의 특성을 보임.

<참고> 멕시코 주요 기업의 최근 해외투자 현황

기업명	취급 분야	주요 투자국	해외자산 (US\$백만)	참 고 사 항
Cemex	시멘트	호주, 미국, 중남미 국가	24,411	미국, 호주에서 시멘트 및 건자재 사업을 하는 Rinker Group(호주)을 '07년말~'08년초 153억불에 인수하여 세계 3위 시멘트 업체로 부상하고 아시아 대양주지역의 영향력을 확보했으나 은행대출 및 사채발행에 의한 무리한 사세확장 및 파생상품 운용 실패가 세계적 경기침체와 맞물려 '09년 주가가 60% 하락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해외자산 매각을 진행중에 있음.
America Movil	이동 통신	파나마, 과테말라	8,701	대재벌 Carlos Slim 소유 기업으로 파나마의 Enitel(이동통신사) 및 과테말라의 Alo(이동통신사) 인수
Telmex	유선 전화	칠레, 아르헨티나, 브라질	5,790	대재벌 Carlos Slim 소유 기업으로 칠레에서 AT&T(미국), Chile Sat(칠레) 인수, 아르헨티나에서 AT&T, Ertach(아르헨) 인수, 브라질에서 AT&T, Embratel(브라질) 인수
FEMSA	보틀링	브라질, 콜롬비아	3,105	FEMSA는 원래 멕시코 기업이나 Coca Cola가 지분의 40%를 인수한 후 해외투자를 활발히 함. 브라질에서는 Coca Cola Brasil, Minas Gerais 인수, 콜롬비아에서는 Bottling 공장 건설
Gruma	제분	중국	1,483	'07년~'08년 중국에 옥수수제분공장(3곳) 건설
Grupo Bimbo	제빵 제과	중국	1,297	'07년 중국소재 스페인계 제빵공장 Pan Rio 인수
Televisa	방송	포르투갈	68	'07년말 포르투갈 cable TV (TVI) 지분 50% 인수
Mabe	가전 제품	브라질	35	'09년 6월 Bosch und Siemens 브라질 법인 100% 인수
합계			44,890	

자료 : UNCTAD, PROMEXICO 등 종합

<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>